

Basell, 사우디 No.2 PP 45만톤 합작

PDH 프로세스로 생산된 프로필렌 사용 ... Spheripol 채용 2007년 가동

Basell이 사우디아라비아에 2번째 합작 PP(Polypropylene)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PDH(Propane Dehydrogenation)를 통해 생산된 프로필렌(Propylene)을 원료로 사용한다.

Basell은 사우디 Al-Zamil Group과 Basell의 Spheripol 기술을 채용해 PP 45만톤 플랜트를 건설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PP 플랜트는 2007년 가동될 예정이며 UOP Oleflex 프로세스를 이용해 PDH에서 파생된 프로필렌을 원료로 사용하게 되며, 사우디 국영기업이자 가스공급기업인 Saudi Aramco가 프로판(Propane)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또 Basell은 Saudi Polyolefins과 합작으로 사우디 Al Jubail에 PP 및 PDH 각각 45만톤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 2004년 초 양산에 들어간다.

Basell은 Shell 및 BASF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최근 사우디는 EU(European Union)가 사우디 소재 석유화학기업들에게 프로판과 같은 원료를 싼 가격에 공급하는 대신 천연가스 이중 가격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PP 프로젝트를 감행했다. 사우디는 원료 코스트가 낮은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동은 전 세계적으로 에틸렌(Ethylene) 및 프로필렌(Propylene) 코스트가 가장 낮으며 원료 공급량도 풍부하다. 또한 Gas-to-Methanol 및 Methanol-to-Gas 프로세스 뿐만 아니라 PDH와 같은 프로세스 개발로 새로운 모노머 응용분야가 생겨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2/29>